

한국 '기계비평'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전망

강부원*

1. 한국 '기계비평'의 개념 정립과 출현 양상
2. 근대의 테크놀로지와 기술적 대상들
3. '과학기술학' 및 '기계비평' 발전 역사(略史)
4. '기계비평'의 도전과 전망

국문요약

'기계비평'은 기계적인 지식만을 다루는 비평 방법론이 아니다. '기계비평'은 기계와 관련된 인간의 삶과 문화를 총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과 실천이다. 도구적 인간(호모 파베르)의 등장과 함께 기계는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대상이자 존재 배경 그 자체였다. 근대 사회가 인문부흥과 산업혁명의 복합적 상호 작용의 결과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일반적 상식에 비춰보면 기계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이성과 의지는 근대성의 핵심적 구성 원리가 될 것이다. 더욱이 국가와 자본이 기계를 장악하고 그 표상과 작동 원리를 지배와 통치의 메커니즘으로 적극 활용하는 근대국가의 역사를 돌아볼 때, 기계에 대한 해방적 사유는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과제이기도하다.

한국에서 '과학기술학'과 '기술철학'은 아직 빈곤한 형편이다. '기계비평' 역시 아직 완전하게 자리 잡은 비평 분야는 아니다. '기계비평'은 2000년대 중반 이영준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기계비평'은 90년대 이

* 성균관대학교 국제한국학센터 연구원

후 한국에서 활성화된 ‘문화연구’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계승한다. ‘문화연구’와 ‘기계비평’은 근대성 비판이나 사회 변화를 향한 기대와 실천 의지를 공유한다. 한편 ‘기계비평’은 기계를 직접 대상화하고 전면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그것과 관련된 생활과 문화 그리고 정치와 철학에 대한 종합된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계비평’은 ‘문(文)’과 ‘이(理)’의 구분이 관성화 된 한국 학계의 오래된 전통에 균열을 가한다. 분과학문 간의 장벽을 철폐하고 통섭과 융합을 추구하는 전위적인 지식인 셈이다. 하지만 ‘기계비평’과 관련된 성과들은 아직 성기고 산발적이어서 비균질적으로 관찰된다. 관련 연구논문과 강의, 출판 등이 기존 학문의 일반적 공정과는 다른 형식과 순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첨단의 양상은 미디어와 학계의 주목을 받기도 한다. ‘기계비평’은 인문학과 공학 사이의 가교를 자처하며 기존 융복합의 한계마저 극복하려는 새로운 도전이다.

(주제어: 기계비평, 문화연구, 과학, 기술, 테크네, 인문학, 기술적 대상들, 융복합)

1. 한국 ‘기계비평’의 개념 정립과 출현 양상

‘기계비평’은 기계적인 지식이 아니다. ‘기계비평’이란 기계에 대한 사유를 비평적으로 확장하는 작업의 실천이자 산물이다. 기계비평은 기계의 물질성에서부터 시작해 인간과 기계가 맺는 관계까지를 살피는 총합적인 행위임은 물론 문학, 예술 같은 전통적인 비평의 영역을 넘어 이제 기계도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과 시도이기도 하다.

‘기계비평’은 현대사회 서구에서 발전한 ‘과학기술학’¹⁾과 ‘기술사회학’

1) “과학기술학은 이른바 ‘과학기술운동’과 같은 것이 아니며, 과학기술자들이 종종 경제

의 비판적 의식을 계승한다. 이와 동시에 '기계비평'은 기존의 '과학기술학'이 정초한 사회적 개입에 의거한 기술 해석의 관점과 현실 변혁의 의지를 분유하고 있기도 하다. '과학기술학'이 '스트롱 프로그램(Strong Program)²⁾으로 대변되는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철학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술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모색하고 그 연관을 심구하는 본격적 시도였다면, '기계비평'은 기술의 응집이자 물질적 구현인 기계라는 작용 및 결과, 그리고 또 그와 총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술적 대상들에

하듯 "과학기술의 발전에 제동을 걸겠다는 목표 아래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과학기술학의 목표는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과학기술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과학과 기술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에 대해 이해하는 것과 사회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니다. 과학기술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현대사회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반대로 현대사회의 특징들을 감안하지 않고는 오늘날의 과학기술이 운영되는 방식도 이해할 수 없으므로 두 가지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 시민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김태호, 『과학기술을 말하기 두려운 시민에게』, 『시민사회신문』, 2014.10.28.)

- 2) SSK(sociology of scientific knowledge, 과학지식의 사회학), "과학의 사회적 구성론"(social construction of science),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 social constructivism), "에딘버러 학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쿤, 콰인, 핸슨 등의 철학적, 역사적 주장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들어 데이빗 블루어(David Bloor), 배리 반스(Barry Barnes), 데이빗 에지(David Edge), 도널드 맥켄지(Donald McKenzie), 스티븐 쉐이핀(Steven Shapin)등 에딘버러 대학의 과학학 프로그램 멤버와 해리 콜린스(Harry Collins), 트레버 핀치(Trevor Pinch) 등에 의해 사회과학적인 명제로 정리되었다. 실험 데이터가 과학 이론을 충분히 결정하지 못한다는 콰인의 불충분결정이론(underdetermine theory)은 사회적 이해관계(social interest)가 실험 데이터와 결합해서 이론을 "충분히" 결정한다는 "사회적 결정론"으로 변형되었다. 이에 덧붙여 관찰의 이론의존성은 과학이 객관적, 보편적이 아니라 주관적, 사회적임을 보이는 증거로 원용되고 쿤의 불가공약성은 과학에서의 서로 다른 주장들의 진위가 단지 상대적(relativistic)일 뿐이라는 극단적인 상대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데이빗 블루어는 과학이론의 발달이 사회적 요소가 과학에 미친 영향에 의해 인과적으로 설명되어야 하고, 이 사회적 요소가 성공한 과학과 실패한 과학, 합리적인 과학과 비합리적인 과학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혁신적인 주장을 폈다.(홍성욱, 『생산력과 문화로서의 과학 기술』, 문학과학사, 1999, 27~31쪽.)

대한 해석과 정치문화적(인문종합적) 절합을 시도한 실천적 작업인 셈이다. ‘기계비평’은 ‘문(文)’과 ‘이(理)’의 계열을 분리하는 제도화된 지적 전통에 충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과학’과 ‘철학’ 혹은 ‘기술’과 ‘역사’ 사이의 분리된 틈 사이에 아교질(阿膠質)을 공급하고 또 그 융합과 복합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날 점차 한국에서 활기를 띠어가고 있는 ‘기계비평’의 담론 생산은 갑작스럽고 뜬금없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기계 환경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기계는 이미 공기와도 같은 존재여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 요소임에도 이미 그것들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작동시키기에는 불요불급한 대상들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기계적 환경의 자연화’는 근대 이후 인간의 처지와 실존 배경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명제여서 오히려 우리를 먹이고, 입히며, 살게 내버려두고 때로는 죽게 만드는 이 기계들에 대한 해석은 늘 유보되거나 지연되어 왔다. 즉, 기계에 관한 지식들이 해방되지 못한 채 비밀스러운 형태로 은폐되고 때로는 ‘제원(諸元)’이나 ‘매뉴얼(manual)’의 형태로만 압착되었던 이유는 기계를 장악한 국가와 자본에 의한 의도적인 결과³⁾이기도 하거나 한편으로는 기계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도 기기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을 ‘편리’로 느끼는 기계의 사용자 환경이 갖추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술의 발전과 기계 지식의 이해가 상호 연동되지 않고도 사용자에게 그 쓸모와 가치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는 착각이 들게 하는 가속화된 기술 발전이 마치 ‘만능’이거나 ‘스마트’한 것인 양 되어버렸다.

즉, ‘기계비평’은 아직 관습으로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비평의 형식

3) 강부원, 『매뉴얼과 전쟁기계 - 기술지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진보평론』 66호, 2015 겨울호, 224-228쪽.

이자 방법론이며 실험과 모색을 통해 시나브로 만들어지고 있는 개념이다. 한국 '기계비평'은 예술비평사에서 '초현실주의'나 '다다이즘'이 등장했던 전례처럼 갑작스럽게 보이지만 그러한 유파나 사조의 형식으로서만 돌연 출현한 것은 아니다. '기계비평'의 등장은 완전하지만은 않지만 구조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조직 원리와 하부구조의 작동 양상을 조직적으로 관찰해보자면 기계야말로 현대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생존 배경이다. 맥루한이 미디어에 대해 설명한 것처럼 기계 역시 신체의 일부이자 연장이기도 하다. 인간의 삶과 기술 간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설명할 때 그 관계의 내부적 핵심 고리로서 '기계'의 위상과 의미에 대한 해석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른 때에 비로소 '기계비평'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한편 '기계비평'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이른바 가속화된 기술 발전을 중용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대항 담론과 그 지적 투쟁의 과정에서 제출된 운동과 실천의 한 양식이기도 하다. 한국은 발전 산업국가로서의 성장 모델 서사를 표나게 내세우는 국가이다.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발전 표상을 유지하기 위해 성장 엔진을 중단 없이 가동하는 것을 제일의 가치로 내세웠다. 한국의 경제개발 역사를 되짚어보건대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와 신자유주의의 무차별적 확산 과정에서 일궈온 기술의 비정상적 발전 양상이나 모순은 그다지 짐작하기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지배와 통치의 메커니즘을 옹호하기 위한, 국가 발전 모델에 충실하게 복무하는 기술의 개발이야말로 국가주의적이며 동시에 자본주의적인 기계의 개발과 운용만을 부추겨왔다. 기술만능주의의 비정상적 활개와 테크놀로지 숭배 분위기가 사회 전반을 장악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기술은 점차 '사회적인 것'과 유리되며 소외돼 왔다.⁴⁾

4) 이영희는 한국 과학기술사회학이 발전국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대한민국의 과학

‘기계비평’은 시의적절한 필요성에 의해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제했다시피 아직까지 학문장의 공인된 영역으로 간주되기 어려운 측면이 여전히 있다. 또한 오늘날 한국의 ‘기계비평’이 기계(機械)를 탐(耽)하거나 기계에 취(趣)한 매니악(maniac)한 소수의 비평가에 의해서만 선도되고 있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들은 기계의 작동원리나 결합, 분해 등에 관한 기술적 관심보다 기계의 원천적 의미와 그 종합적 효과를 탐색하길 선호한다. 더구나 ‘기계비평’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공학 지식이나 물리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이(理) 방면의 지식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예술 및 철학, 문학 등의 학문을 기초 자료로 삼고 있는 기계학의 방외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들은 기계에 대한 공학적 지식을 설명하기 보다는 기계의 표상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거나 역사속의 기계, 인간과 기계 등의 관계를 망라해가며 근대성 비판의 새로운 장을 열거나 현대의 정치와 사회를 기계를 통해 환유하는 전략을 택하기도 한다.

‘기계비평’이 기존 학문의 체계와 질서를 전환하는 매개가 되기에는 아직 불충분하게 보임에도 어느새 각 대학과 분과학문의 제도 내부로 ‘기계비평’이 점차 진입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하지만 강의 혹은 논문으로 실제 실현되고 있는 ‘기계비평’의 양상은 여전히 영성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여전히 ‘문화연구’와 ‘기계비평’의 차이를 억지로 구분하려하거나 그마저 혼동하는 경향이 강하고, 기계적 지식이 결핍된 인문사회학자들이 기계를 해석하겠다는 시도 자체를 마뜩잖아 하거나 실소하는 과학기술학계의 배타적인 태도도 여

기술 만능주의와 과학기술 낙관론에 대한 비판과 성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영희, 『한국 과학기술사회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경제와사회』 제100호, 비판사회학회, 2013, 254-256쪽.)

기저기서 발견된다.⁵⁾

앞서 지적한대로 '기계비평'은 '문화연구'와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정도로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며 거시적인 방법론을 공유한다. 이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기계비평'을 '문화연구'의 흐름을 이어받은 양자(養子)나 서자(庶子) 쪽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실제로 '기계비평'의 연구자들이 대부분 '문화연구'의 세례 속에서 성장한 세대들이기도 하거니와 '문화연구'의 토대 위에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하는 연구자들이기도 하다. 더해 '기계비평'과 '문화연구'간의 목표와 방법론이 손쉽게 유비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종합적인 인문학 연구와 실천에 대한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한국 인문·사회학의 풍토를 다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던 '문화연구'의 지층은 이미 인문학 연구 저변에 넓고 깊게 자리 잡았다.

'기계비평'과 '문화연구'는 ① 근대성에 대한 이해 및 비판적 입장뿐만 아니라 실천적 변화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② 모더니티의 수용과 극복이라는 이중 과제를 모두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③ 공동체 내부의 법과 제도의 위력과 구성원들의 긴박과 통제 양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④ 궁극적으로 통합된 삶에 대한 기대와 요청이라는 점에서 담론적 지대를 공유한다. 기계에 대한 해석과 비평이 ⑤ 사회문화적인 중층성을 띠고 이루어지며 ⑥ '모던'과 '反모던'의 경합을 모두 반영한다는 점에서도 '문화연구'와의 일치된 맥락을 보여주기도 한다. 게다가

5) 이러한 관점은 과학과 인문학 사이의 뿌리 깊은 '진영 갈등'이기도 하거니와 서로의 지식과 방법론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서로간의 "통약불가능한 대화"가 오히려 과학주의와 인문학주의의 각각의 자기 쇄신에 기여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주장도 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양 진영 간의 '통약불가능성'이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확인되고 교섭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오용득, 『과학주의자와 인문학주의자의 통약 불가능한 대화의 실질적 의미』, 『서강인문논총』 제36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31~63쪽.)

⑦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물적 토대의 구체적 대상에 대한 지목으로 시작해 그 메커니즘과 시스템의 근원에 대한 탐색과 성찰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⁶⁾

‘문화연구’의 자장에서 성장한 ‘기계비평’이 새롭게 보여준 진전도 있다. ‘문화연구’는 일반적으로 풍속 혹은 일상의 차원에서 환기될 수 있는 경험과 반복에 대한 역사적 검토를 통해 그 문화적 경향들의 기원 및 변화 양상을 해명하고 공동체와 구성원의 삶의 지평을 문화적 ‘인텍스’로 확장하거나 이데올로기적으로 분류해 보편적 양상들과 특수한 경험들을 구별해낸다. 그렇다면 ‘기계비평’은 여기서 더 나아가 매니악한 지적 탐구의 기초위에서 좁고 깊은 듯 보이지만 한편으로 매우 넓거나 얇기도 한 기계들의 배경, 위상 그리고 의미에 대해 좀 더 즉물적으로 천착한다. 또한 기계 환경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개인들의 기술 추체험과 기계 경험 사이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한다. 기계 체험의 차이에 따라 습득하거나 깨치게 되는 기술적 지식과 그 지식의 사용이 현대사회의 생산과 소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배와 통치의 양상이 어떤 체계와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테크놀로지의 차원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 바로 ‘기계비평’의 임무이다.

‘문화연구’가 문화적 실천의 의지를 충만하게 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정치적 자원들에 대한 해석에 집중해 사회의 ‘변혁’(≒혁명)을 추동한다면, ‘기계비평’은 인간을 초과하는 기술적 역능에 대한 열망과 공포를 통해 인간 이후(“포스트 휴먼”)의 상상으로까지 육박한다는 점에서 ‘변혁’

6) 과학기술학(STS) 연구자중 하나인 임소연은 ‘기계비평’에 대해 “개별 기계에 대한 경험연구”를 통해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행위 및 그를 통해 생산되는 지식에 대해 성찰할 수 있게 해주며, 과학기술학의 “문화적 실천”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평한다. (임소연, 『STS의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기계비평』, 『과학기술학연구』 12, 한국과학기술학회, 2012, 213쪽.)

을 넘어서는 '해체'와 '탈주'까지를 지향한다.⁷⁾ 물론 그 '해체'는 근대성에 대한 전면적 재구성의 기획을 포함하는 것이며 '탈주' 역시 개인의 정치적 해방은 물론 자본과 국가 너머의 공동체에 대한 모색과도 맞닿아 있다.⁸⁾ 즉, '문화연구'와 '기계비평'의 관계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할 영역이 아니라 상호 영향관계 속에서 서로를 보충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이제 '기계비평'은 물질과 현상간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해명하려는, 혹은 기술 환경의 급속한 발달을 몸소 경험한 속에서 충만한 지적 충동을 발전시켜 온 후세대 비평가들에 의해 연속되고 있다. '기계비평'은 지식의 '계(界)'와 '장(場)' 사이의 구별이 엄격했던 제도화된 지적 전통을 거부하는 별종의 분자들에 의해 새롭게 시도되는 '기술인간학'이자 '종합인문사회학'이기도 한 셈이다. 또한 '기계비평'은 분과학문 체계의 교류와 타협의 결과로만 국한돼 이해되는 방식을 지양하며, 더 나아가 오늘날 수사적이고 관용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학문 용어가 되어버린 '융합'과 '통섭'의 한계마저 극복하는 해체적 지식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근대의 테크놀로지와 기술적 대상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송아지에게 코뚜레를 뚫는 모습을 지켜 본 적이 있는가. 연약 하고 부드러운 코칭에 나뭇살을 썰 때 송아지는 고통

7) 김재희, 『포스트휴먼 사회를 상상하기 위한 하나의 청사진: 질베르 시몽동의 기술정치학』, 『법한철학』 제72집, 법한철학회, 2014, 410쪽.

8)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공동체 - 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 정남영·윤영광 역, 사월의책, 2014, 12쪽.

스럽게 운다. 일소로 부리기 위해서는 송아지가 성체로 자라기 전에 미리 코뚜레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래야만 송아지를 일소로 길러낼 수 있다. 일소가 해낼 수 있는 작업량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가 송아지의 고통을 면해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지금은 낫설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농촌에서는 일소를 부렸다. 쟁기를 끌고, 짐을 나르는 소는 인간의 서른 배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다. 농경사회에서 소는 인간의 노동을 보조해주거나 대행해주는 중요한 가축이었다. 다른 문화권에서 말(馬)이 수행하는 역할을 떠올려 보아도 소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처럼 가축을 기르고 활용하기 시작한 역사는 도구를 통해 인간의 노동력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호모파베르(Homo Faber)의 역사와 맞먹는다.

손도끼와 수레바퀴로부터 시작된 기계의 역사는 이제 최첨단 정밀 가공 기계와 빠르고 거대한 운송 기계로까지 이어진다. 인간의 기술은 좀 더 빠르고, 좀 더 큰 힘을 내는 기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그렇기에 기계의 가치는 주로 그 기계가 낼 수 있는 최대치의 속도와 최대량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 기계의 생명은 속도와 힘에 있다. 고전 물리학의 법칙($F=ma$)을 충실하게 구현하는 장치이자 도구가 곧 기계인 셈이다.

근대 사회가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이해이다. 인문적 사유와 예술의 부흥, 그리고 법과 제도에 기반한 근대적 개인의 출현이 근대성의 한 축을 구성하는 부분이라면 그 다른 한 편에는 거대하고 복잡한 기계 개발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 더욱이 근대 사회에서 기계는 생산과 소비의 메커니즘을 전적으로 구동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항목이 되었다. 노동력과 생산력의 함수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거대한 기계들의 발명은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과 성장의 동력이 되었으며 이는 근대 사회

의 매우 중요한 속성으로 자리매김 한다.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한 자본가가 생산력의 근간인 노동자를 지배하면서 자본주의에 기반 한 근대 국가가 성장을 거듭해왔다는 사실은 기계를 둘러싼 국가 간, 계급 간의 경합이 근대 정치의 주요한 맥락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끔 한다.

더욱이 19, 20세기를 걸쳐 지속된 제국의 식민지 정책과 그 와중에 겪게 된 1, 2차 세계 대전은 초고속으로 개발된 전쟁 기계들이 국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매우 직접적인 표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였다. 강하고, 무겁고, 빠른 기계를 만들어 생산과 국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국가만이 제국이 될 수 있었다. 기계란 결국 인체 능력을 넘어서는 힘을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지배 정책의 역사적 부산물이기도 한 셈이다.

하이데거는 기술을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 인간이 존재자들과 교섭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규정하였다. 기술이 야기한 결과들 혹은 효과들보다는 기술현상 그 자체, 곧 현상적 차원에서 생생하게 감지되는 기술의 본성과 그 역할에 주목한 것이다. 또한 현대의 기술은 단순히 목적을 위한 중립적 수단이 아니며, 인간과 세계 사이에 개입하여 그 관계를 굴절시키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실존 방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테크놀로지'는 더 이상 도구로서의 어떤 것이 아니다. '테크놀로지'는 도구와 상관없이 이미 세계의 전체이며 모든 지(知)와 예술의 존재방식이다. 하이데거에게 '테크놀로지'의 본질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의 '테크네(techne)'의 개념과 유사하다. '테크네'란 "예술", "숙련 기술" 또는 "공예"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테크네'는 인간을 위할 수 있는 어떠한 무엇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뜻했다. 그 안에는 미술, 조각, 웅변, 건축 등 모든 것이 포함

되어 있다. 여기서 기술은 목적에 대한 수단이 아니며, 도구나 기계의 조작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⁹⁾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한 ‘테크네’의 의미를 살펴보면 기술의 본질은 더욱 극명해진다. ‘테크네’는 예술 작품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 배후에 있는 기법과 이론을 연구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술 작품의 창작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 안에 있는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여기서 ‘테크네’는 예술작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휘되는 자기표현의 추진력을 말한다. 원래 ‘테크네’ 라는 말은 단순히 제작의 방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정신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¹⁰⁾

고대의 ‘테크네’에서부터 이어져 온 ‘테크놀로지’란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예술과 기예를 포함한 “종합”으로서의 의미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테크놀로지’라는 말은 이러한 철학적 의미에 도달하지 못하고 흔히 도구적인 의미로만 이해된다.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기술이거나 생산 장치로서의 기계. 그것은 그저 수단으로 기능할 뿐이지 그 자체로 어떠한 의미를 갖거나 미학을 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즉, 제국의 시대와 현대 국가의 시대에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성과 논리에 의거한 자연 과학 기술과 기계 덩어리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그러므로 비테크놀로지적인 것은 이성과 논리로 설명하지 않는 것, 또한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그 설명될 수 없는 향이 바로 예술의, 미학의 영역이다. 이러한 인식은 하이데거가 인식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전면적인 오해이자 하이데거가 스스로 현대 기술을 비판한 지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근대의 도구적 테크놀로지가 근원적 테크놀로지를 사산

9) 이기상, 『존재 역운으로서의 기술 - 사이버 시대에서의 인간의 사명』, 『하이데거 철학과 동양사상』, 한국하이데거학회, 2001, 310~312쪽.

10) 엘리안 스트로스베르, 『예술과 과학』, 김승윤 역, 을유문화사, 2002, 36쪽.

시키는 장면은 어느 장소였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테크놀로지로부터 예술이 떨어져 나가게 된 상황에서도 기술의 역사는 근대 국가의 권력과 자본의 물질 관계와 궤를 함께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과 기계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철학적 실존의 문제만 언급되고 기계에 대한 비평은 항상 누락되거나 삭제되었다. '기계비평'에는 국가가 기계를 도구적 테크놀로지로 전유하는 방식과 전략이 숨어 있으며 그렇게 된 기계가 조장하는 문화의 위계와 역사가 은폐된 채 기록되어 있다.

엄청난 물리량을 발휘하는 기계의 내용과 마주치는 순간 테크놀로지의 본질은 휘발되어 버린다. 테크놀로지의 본질을 놓친 기술은 인간의 존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처럼 근대의 기술이 국가와 자본에 의해 도구적인 가치로만 전유되는 상황에서 미학적 예술적 사유를 가능케 하는 '테크네'의 근원적 힘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국가와 자본은 끊임없이 기계의 비밀을 은폐한다. '기계비평'은 이러한 국가와 자본의 기술적 습격을 방어하는 장소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질베르 시몽동의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¹¹⁾는 기술철학의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열어주며 '기계비평'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다져놓았다. 질베르 시몽동은 사람들이 기술에 관해 너무 비관적이거나 혹은 너무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한다. 사람들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즐겨 다루듯이 기술이 자연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인간을 기술의 노예로 만들게 되리라는 막연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기술 예찬론자들은 기술이 인간을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11) 질베르 시몽동,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 김재희 역, 그린비, 2011.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전자의 사고가 기술적 대상들이 자연 및 인간에 대해 적대적 존재라는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후자는 기술적 대상들을 오직 인간의 편리에 봉사하는 단순한 도구로 간주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시몽동에 따르면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는 기술적 대상에 대한 동일한 인식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것은 기술적 대상의 본질이 자동성에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20세기 후반 “사이버네틱스” 이론을 통해 널리 유포된 이런 믿음은 기술적 대상 또는 간단히 말하면 기계에 대한 세 가지 통념을 함축한다. 하나는 기계가 미리 결정된 작용만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결정론적 통념이다. 둘째, 따라서 기계는 전적으로 수동적인 존재자라는 생각이다. 셋째, 이 두 가지 통념은 결국 기계는 인간과 전혀 무관한 것이며(왜냐하면 인간은 자유롭고 능동적인 존재자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반(反)인간적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기계는 인간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도구로 남을 때에만 유용한 것이며 ‘기술적 자동성’의 개념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몽동은 우선 자동성이 기술적 대상의 본질을 이룬다는 생각을 반박한다. 기술의 본질은 오히려 비결정성에 있다. 곧 기술적 대상은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외부 정보에 대한 감수성을 지닌 열린 체계다. 다만 생명체는 완전히 “구체화”되어 있는 데 반해, 기계는 항상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쉽게 말하면, 기계는 생명체와 달리 정보를 생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독자적인 힘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술적 대상들은 자신의 고유한 진화 과정에 따라 발전하지만, 인간의 작용을 필요로 한다. 이때 인간과 기술적 대상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의 관계다. “인간은 자

기 주위에 있는 기계들의 상설 발명가이자 조정자로 존재하는 기능을 갖는다. 인간은 자신과 함께 작용하는 기계들 가운데 존재한다.”

그렇다면 기술을 두려워하고 배척하는 반근대주의자나 기술의 유용성과 그 메커니즘이 시스템화 된 양상에 대한 맹목에 가까운 신봉을 보이고 있는 테크노크라트들 모두 기술적 소외를 강화하고 있을 뿐이다. 시몽동은 '기계비평'이야말로 이러한 기술적 소외를 극복하는 것, 곧 기술공학적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암시를 전해주고 있다.¹²⁾

3. '과학기술학' 및 '기계비평' 발전 역사(略史)

기술 객관주의의 오류는 이렇듯 학문의 정치적 스펙트럼에 상관없이 골고루 퍼져 있다. 기술낙관론과 객관주의의 생산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기술이란 인간의 외재적, 도덕 윤리적, 사회적 선택의 '하명'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중립적인 대상이 아니라 이미 기술 그 자체에 그 안에 사회의 가치를 압축해 담지하는 실체란 당연한 사실이다. 그 덕에 일련의 비결정적 환경 조건에 의해 기술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재정의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이 같은 기술의 상대주의적 시각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술 중립의 신화이기도 한 '기술의 순결성'을 무너뜨리고 "타하면서"도 "불순한" 기술의 본질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과학기술학은 사실상 이러한 불온한 토대 위에서 시작됐다. 기술에 내재하는 중층적 맥락들에 대한 치밀한 연구는 바로 기술 내부에 옹크린 불순함의 동기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과학사회학(SSK)과 '스트롱 프로그램'

12) 김재희, 『질베르 시몽동에서 기술과 존재』,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56집, 한국현상학회, 2013, 200~201쪽.

이 순수과학자와 철학자들 모두에게 사이비라는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정치나 법률처럼 인간의 서로 다른 이해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학의 비판적 담론은 기계비평의 이론적 자양분이 되었다. 한국에서 서구의 과학기술학 논쟁사를 소개한 대표적인 학자는 홍성욱이다. 홍성욱은 일찍이 과학과 인문학의 접점을 마련하고 그 공유지대를 넓혀온 국내의 대표적인 과학사가 이기도 하다. 그의 작업들은 ‘융합’과 ‘복합’이 제도와 수사의 언어로 도착하거나 유행하기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과학철학 분야를 개척한 선두주자였다.

홍성욱은 『생산력과 문화로서의 과학 기술』¹³⁾을 통해 “과학전쟁(Science War)”에 대해 설명한다. 1990년대를 통해 북미와 유럽, 그리고 한국의 과학자와 인문학자 사이에서 화제와 심각한 논쟁의 대상이었다. “소칼의 지적 사기(Sokal's Hoax)”로 대표되는 과학전쟁이 주로 과학자와 인문학자들 사이에 진행되었기에, 많은 지식인들은 이것이 스노우(C.P. Snow)가 30년 전에 이미 지적한 과학과 인문학의 “두 문화(Two Cultures)”¹⁴⁾ 사이의 간극을 넓힐 뿐만 아니라, 이 관계를 적대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홍성욱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스노우가 ‘두 문화’의 문제를 제기했던 시기와 달리 물리학과 문학은 더 이상 학문의 여왕 자리를

13) 홍성욱, 『생산력과 문화로서의 과학 기술』, 문학과지성사, 1999.

14) 스노우가 언급한 ‘두 문화(two cultures)’란 1959년 캠브리지 대학의 강연에서 제기한 문제인데 여기에는 과학과 인문학 사이의 심각한 단절과 불신의 혐의가 짙게 배어있다. 예를 들면 “인문학자 중에 열역학 제2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것은 과학자가 셰익스피어를 읽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에서 보듯 서로의 영역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며 교섭과 협력에의 의지가 없는 과학과 인문학의 관계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C. P. 스노우, 『두 문화』, 오영환 역, 사이언스북스, 2001, 12-16쪽.)

놓고 경쟁하는 후보가 아니다. 인문학과 이공계의 위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두 분야가 모두 자신의 틀 안에서 안주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순수학문으로서 가치가 있고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소극적 논리를 넘어 과학과 인문학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효용을 보여주는 것이 긴요한 시점이다.¹⁵⁾

송성수는 한국에서 인문학과 과학의 결합 및 화해를 촉구하는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이라는 학문의 도입 및 제도화를 선도한 과학기술학 연구자이다. 현대 사회가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불리듯이, 과학기술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많은 사회적 현상이나 담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과학기술학은 사회 속의 과학기술을 찾고, 과학기술 속의 사회를 찾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사회를 논의할 때에는 과학기술을, 과학기술을 논의할 때에는 사회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한국 기초교육의 독특한 학적 제도인 인문사회계와 이공계의 분리 전통의 폐해를 지적하며 문·이의 통섭(統攝, consilience)을 강조하였다.¹⁶⁾

홍성욱과 송성수 등이 선구적으로 소개하고 제기한 '과학사회학'과 '과학기술학'의 필요성은 1980년대부터 서서히 담론화 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과학사'와 '과학학' 강의 및 과정이 개설되고, 이공계 전공자들의 글쓰기 교육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인문학 전공자들에게도 기초과학이 교양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포항공대, 서울대, 한양대 등이 1980~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과학기

15) 홍성욱, 「인문학적 사유의 창조성과 실용성」, 『동향과 전망』 제44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0, 212~231쪽.

16) 송성수 외,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연계 확대 정책방안』, 한국과학기술학회, 2007, 23~24쪽.

술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포항공대는 1992년도부터 〈문학
학적 글쓰기〉, 〈철학적 글쓰기〉, 〈과학적 글쓰기〉 중 하나를 필수로 이
수해야 했으며, 서울대의 경우에도 90년대 말부터 〈사회과학 글쓰기〉,
〈인문학 글쓰기〉, 〈과학과 기술 글쓰기〉 등의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접근을 지향하는 교과목의 개
설도 활발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양대는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라는 통합교과적 과목을 이공계 학생의 교양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
다. 또한 공학교육인증제의 일환으로 〈공학소양교육〉이 강조되면서 공
학기술과 역사, 사회, 윤리, 경제, 경영, 정책, 의사소통 등을 포함한 교
재개발과 강좌개설이 이어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며 교과목 개설 수준을 넘어서 대학에 과학사
와 과학기술학 과정이 개설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학의 본격적인 제도
적 안착이 실시된 것이다. 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전북대
과학학과(학부), 고려대 과학기술학 협동과정, 중앙대 과학학과 협동과
정, 부산대 과학기술학 협동과정,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협동과정,
KAIST 과학기술학 협동과정이 생겨났다.¹⁷⁾

과학기술학(STS)의 성숙은 점차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교류 및 상호
간섭을 정당화해왔으며 그 점점 및 교차 지면을 점차 확장시켰다. 사회
에 적용되는 과학기술의 맥락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인문적 과학관이 확
립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과학기술학을 전문으로 대학원과 학위과정
을 이수한 최형섭과 전치형과 같은 연구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나
라에도 본격적으로 과학기술학 분야의 전문 인력이 육성되고 대학의 정
규 학제로 편성이 가능해졌다.¹⁸⁾

17) 송성수,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공생을 위하여』, 『과학기술정책』 158호, 과학기술정
책연구원, 2006, 10~12쪽.

이처럼 한국에도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의 대화 및 교섭을 촉진하려는 노력이 다양한 계기를 통해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의 연계를 위한 노력은 대부분 교육 제도의 차원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비평은 병행되지 못하는 처지였다. 또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를 아우르는 연구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이 과학기술정책, 기술경제, 기술경영 등과 같은 실용적인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과학기술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는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공계 출신의 학자 혹은 연구자가 인문사회학을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되는데 비해 인문사회계의 배경을 가진 학자 혹은 연구자가 과학과 기술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경우는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무르익었다고도 혹은 척박하다고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에서 2000년대 중반 '기계비평'은 시작되었다. 이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비평가는 이영준이다. 이영준은 실상 '기계비평'이라는 명명을 한국에서 최초로 사용하고 개념을 정립한 비평가이다. 또한 현재까지 한국에서 전문적인 기계비평가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이영준이 유일하다시피 한 형편이기도 하다. 사진 이론 연구 및 이미지 비평을 통해 단련된 이영준의 비평적 역량이 기계를 만나면서 폭발하게 되었다. 그의 성취는 기념비적인 저작 『기계비평』¹⁸⁾을 통해 공개되었다. 이 책은 기계에 대한 인문학적이면서도 미학적인 접근을 보여준다. 아무도 관심이 없거나, 도무

18) 최형섭과 전치형은 국내에서 매우 드물게 정식으로 과학기술학(STS)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고 이공계 대학 제도 내부로 안착에 성공한 전문 과학기술학 연구자들이다. 이들은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및 과학기술학 교육에 큰 관심을 쏟고 과학·기술 학문의 지반 위에서 인문학적 통섭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19) 이영준, 『기계비평 - 한 인문학자의 기계문명 산책』, 현실문화연구, 2006.

지 알 방도가 없었던 기관차와 선박, 항공기 등의 구동 메커니즘과 그 기계들의 속도와 규모의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지각을 교묘하게 지배하게 되는 역학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었다. 이영준은 이후 인간이 만든 가장 거대한 기계중의 하나인 컨테이너선을 타고 한 달 간 대양을 횡단하며 괴물 같은 힘을 내는 10만 마력의 엔진과 그 기계 안에서 발생하는 노동, 그리고 자연으로서 바다를 극복하는 인간의 투쟁 등에 대한 기록인 『폐가서스 10000마일』²⁰⁾이라는 노작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기계의 외형과 엔진 내부의 모습에 매혹을 느끼는 것은 물론 기계가 지닌 원천적 힘에 압도되는 전형적인 ‘기계 오타쿠’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기계의 소음은 물론 기계의 주변을 가득 매우고 있는 인간의 노동뿐만 아니라 기계가 환유하는 모든 사회관계와 정치질서를 체험과 비평적 직관 양측에 모두 기대어 비평하고 있다.

이영준은 일상적이면서도 소박한 기계인 선풍기, 전화기, 타자기 같은 기계에도 관심을 두지만 그가 더 주목하는 것은 실상 항공기와 기차, 콜리엇 크레인, 컨테이너선과 같은 거대 기계들이다. 그의 ‘기계비평’은 근대 초기부터 대중들의 시각장과 시각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빠르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기차와 비행기, 선박과 같은 커다란 기계의 맥락과 의미를 해명하는 작업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거대 기계들의 출현과 발달이 근대 과학기술의 획기적 진전에 기여한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 그것의 정치적 문화적 상관 관계로까지 육박해 들어가는 비평 작업이 ‘기계비평’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영준의 등장은 인문 예술적 토대를 바탕으로 삼고 있는 비평가가 기술의 영역으로 본격 진입한 보기 드문 사례였다. 물론 스스로가 자주

20) 이영준, 『폐가서스 10000마일 - 이영준의 본격 항해 어드벤처 대양횡단 기계비평서』, 워크룸, 2012.

언급하다시피 그가 이해하고 있는 공학적 지식의 수준은 공학 전문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계학과 물리학의 이론적 접근에 매진하기보다 기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역사와 사회 문화적 차원의 사용 경험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는 기계가 근대성의 정밀한 아카이브이자 엄청난 지식의 지층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또한 그간 은폐돼왔던 기계에 대한 지식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지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기계비평'을 통해 드러내는 기계에 대한 지식들은 참신해보이기까지 하다.

'비평'이라는 예술 영역에서 구조된 선형적 장르의 관습 속에서 기계에 대한 비평으로 이어지는 대전환의 작업이 엄청난 듯 보이지만 과연 이 비평 행위가 어떤 성취를 보여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요소들이 없지는 않다. 책에서 저자가 기계비평의 임무와 최종목적을 '기계계보학'의 정립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기계비평'이 한편으로는 문화론적 연구의 방법론에 강하게 기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또 '비평'이라는 고유한 형식이 기계를 해석하는데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또 그 비평 행위 자체의 유기적이고 자동적인 기계성에 대해서는 미학적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그는 스스로 몸과 기계가 마주하는 경험과 접촉을 중요시하며 기존에 기계를 둘러싼 요인들만을 강조하는 맥락주의를 넘어서 또 다른 관점의 확립에 주력한다. '기계-주체-맥락'의 삼항의 종합적 인과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등 기계야말로 우리의 '실존배경'이며 '정치현실'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명한다. 비평의 고유의 형식 미학을 통해 정치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와 정치를 직접 유비하는 방식으로 미학을 생성시킨다.

이후 이영준이 작 간접적으로 개입한 '기계비평'의 결과물들이 적지 않게 제출되었다. 『욕망하는 테크놀로지』²¹⁾, 『과학기술과 문화예술』²²⁾

을 비롯해 『불순한 테크놀로지』²³⁾ 등이 본격적인 ‘기계비평’ 서적으로 분류될 만하다. 또한 이영준은 『기계비평』의 성과와 한계를 『이미지비평』²⁴⁾, 『폐가서스 10000마일』, 『기계산책자』²⁵⁾, 『조춘만의 중공업』²⁶⁾를 통해 연속하거나 보충하기도 했다. 최근 이영준은 두 번의 과학 퍼포먼스 행위를 통해 기술과 예술과 비평의 불안정한 동거 실험을 낱것의 형태로 관객과 독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며 ‘기계비평’의 현재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모험을 감행하기도 했다. 백남준의 ‘미디어아트’ 퍼포먼스를 연상시키는 이영준이 기행은 기실 ‘기계비평’의 주제화와 대중화를 향한 적극적인 모색이기도 하다.²⁷⁾

이영준이 시도한 ‘기계비평’은 글쓰기와 비평, 인문학과 기술학 사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든 새로운 비평의 획기적 시작을 알리는 서장이었다. 그의 연속된 작업에 대한 후속 결과로 2000년대 중반부터 그의 선구적 비평 작업에 동의하거나 그 의의를 좇는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와 성과들이 이어졌다.

21) 송성수 외, 『육망하는 테크놀로지 - 과학기술자들 ‘기술’을 성찰하다』, 동아사이, 2009.

22) 정광수 외,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한국학술정보, 2010.

23) 이광석 외, 『불순한 테크놀로지』, 논형, 2014.

24) 이영준, 『이미지비평 - 깃털머리에서 인공위성까지』, 눈빛, 2008.

25) 이영준, 『기계산책자 - 비평가 이영준, 기계들의 도시를 걷다』, 이음, 2012.

26) 이영준·조춘만, 『조춘만의 중공업』, 워크룸프레스, 2014.

27) 〈조용한 글쓰기〉와 〈라면 앙상블〉 퍼포먼스가 그것이다. “〈조용한 글쓰기〉는 아무런 세팅도 없는 공연장에 테이블을 놓고 컴퓨터 앞에서 비평문을 쓰는 퍼포먼스”였다. 관객들은 비평가의 생각이 어떻게 글로 표현되는지를 지켜볼 수 있었다. “〈라면 앙상블〉은 과학이 실험실이나 연구실 안에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 앞에서 쇼의 형태로 수행된다는 사실에 착안한” 퍼포먼스이다. “라면은 가장 보편적 음식이면서 가장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음식이다. 비평가와 과학자와 예술가라는 각기 다른 주체의 입장에서 라면의 소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통해 라면의 일상적 의미와 과학적 의미를 동시에 탐색하는 퍼포먼스였다.”(이영준, 『지식의 한 형태인 기계비평의 위상에 대한 생각』, 『불순한 테크놀로지』, 논형, 2014, 150~151쪽.)

임태훈의 연속된 미디어 관련 저작이 대표적이다.²⁸⁾ 임태훈의 『우애의 미디어로지』와 『검색되지 않을 자유』는 첨단 뉴미디어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세계에 대한 본격적인 '기계비평'에 해당하는 성취이다. 임태훈이 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은 철저하게 기술 환경의 변화와 그 정치문화적 격변 과정을 추적하는 맥락과 일치한다. 그는 기술을 이해하는 비평적 안목과 기술과학의 전망 사이에서 걸어 올린 매개적 양상들의 풍부한 사례를 제시한다. 그의 비평적 사유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중횡무진하며 기술과 매체에 대한 전망을 사회적 비전의 차원으로 확대한다. 임태훈은 첨단 미디어를 통해 훈련된 비평적 글쓰기의 감각을 통해 미디어의 '매개성'과 자본의 '동역학'에 대한 관심을 적극 표명한다. 결국 '불순한' 기술과 그것을 향한 비평 행위가 변화시킬 수 있는 대중들의 삶의 궤도와 행로에 공히 주목한다는 점에서 그의 작업은 기계이 또 다른 새로운 '기계비평'으로 호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오영진²⁹⁾, 강부원³⁰⁾ 등도 '기계비평'의 자장 속에 있는 후발 주자로 꼽을 수 있다. 오영진은 기계들의 속도가 발생시키는 소멸의 미

28) 임태훈, 『우애의 미디어로지 - 잉여력과 로우테크(low-tech)로 구상하는 미디어 운동』, 갈무리, 2012; 임태훈, 『검색되지 않을 자유』, 알마, 2014.
 29) 오영진, 『질주의 코기토, 폴 비탈리오의 사상에 대하여』, 『한양대 미래문화연구소 심포지움』, 한양대 미래문화연구소, 2009; 오영진, 〈소멸의 속도와 자유의 속도〉(한양대 에리카 융복합 프로젝트 '기계비평'); 오영진, 『교양교육으로서 기계비평의 가능성』, 『쿨투라』 2015 가을호, 작가; 오영진, 〈스토리텔링 도구의 최종 진화 - 만연필·타자기·게임엔진〉(성균관대 학부교육선진화사업(ACE) '기계비평론'); 오영진, 『내 손이 빛난다』(알마, 근간).
 30) 강부원, 『식민지 시기 비행기 표상과 기술지배로서의 신체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9; 강부원, 〈항모 민스크호는 왜 테마파크가 되었는가 - 매뉴얼의 서사와 기술지배〉(안드로메다 문화비평, 2012); 강부원, 〈거대기계와 극장정치〉(한양대 에리카 융복합 프로젝트 '기계비평: 성균관대 학부교육선진화사업(ACE) '기계비평론'); 강부원, 『매뉴얼과 전쟁기계 - 기술지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진보평론』 66호, 2015 겨울호.

학에 주목해 인간의 속도를 향한 근원적 열망이 ‘파시즘’과 ‘혁명’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놀라운 속도를 간직한 기계들의 전시는 근대 국가의 통치술 중의 하나인 극장정치를 구성하는 기제이며, 그것이 발생시키는 정치 미학이 국가의 지배와 통치의 근간을 지탱한다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강부원은 기계의 표상이 작동시키는 정치적 후과에 주목한다. 그는 제국의 전쟁 기계, 그중에서도 ‘비행기’ 표상을 통해 국가의 지배와 통치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지를 연구한다. 또한 기계의 필수적인 부속품과 같은 ‘매뉴얼’에 기록되어 있는 서사가 ‘금지’와 ‘명령’의 형태로 기술되어 있으며 그것이 국가와 자본의 기술독점-기계지배의 한 양상을 드러내는 사실에 대한 비판을 통해 “오염된 기계” 표상을 통한 기술지배와 극장정치의 맥락을 분석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임태훈, 강부원, 오영진 모두 국문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이영준의 ‘기계비평’을 국문학 연구자들이 이어받는다라는 사실은 시선을 끈다. 90년대 이후 한국 ‘문화론적 연구’의 자장을 확대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분과학문의 근거지가 바로 국문학(과)이었으며,³¹⁾ 그 속도와 깊이는 다른 출신자들을 압도한다. 고립된 분과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한 정상성의 전통으로 보전해온 ‘국(國)/문학(文學)’ 제도와 역사에 비춰보면 이와 같은 반동은 매우 특이한 것임에 틀림없다. 국문학의 자장 안에서 그 출신으로서 통섭과 융합을

31) “오늘날 국어국문학과 소속(?)의 연구자들은 원래의 영역을 넘어, 문화사와 미디어·사상사 연구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영화(사)연구나 영화비평에서도 활약한다. 이런 활약은 분명 전체 한국 인문학계에 중요한 자극이자 자원이 되고 있다. 이에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배경이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 한국 인문학의 위상변화와 지식의 ‘배치’ 변화를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천정환, 『문화론적 연구의 현실 인식과 전망』, 『상허학보』 19, 상허학회, 2009, 13쪽.)

지향하려는 외력을 강하게 작동할수록 그 내·외부의 질서와 견제의 반작용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럼에도 '문화론적 연구'를 굳건히 수행한 반골(?)들의 투쟁과 실천의 노력들은 90년대 이후 문화연구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창출해낸 자원이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기계비평'의 적자들은 거의 모두 그러한 '문화론적 연구'의 세레 속에서 성장한 세대들이며 그 충만한 자원을 또 다른 차원의 실천으로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기계비평'의 아이디어는 일정 부분 제도화의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기도 하다. 2015년 1학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는 <기계비평>이라는 이름의 강의가 국내 최초로 개설되었다. 인문·자연·예체능 계열을 모두 망라해 전공이 각기 다른 300명이 넘는 대단위 수강생이 신청한 이 강좌는 언론과 매체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이 과목이 개설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계비평'의 선편을 쥐고 있던 이영준의 선행 작업들과 오영진, 임태훈을 비롯한 인문학협동조합원들의 행정적 노력이 대학 밖에서 시행되었던 <오덕인문학>³²⁾과 같은 실험적 강좌의 경험과 결합되어 성사될 수 있었다.

“우리는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속에 살고 있다. 기계는 단순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신체에 육박하는 인공보철물로서 작동하며, 인간의 의식과 인

32) <오덕인문학>은 인문학협동조합이 2013년 10월에 푸른역사아카데미에서 시행한 시민 강좌이다.

주차	강좌명	강사
1	기계 인문학 '초고' - 안티 '다짜고짜 인문학'과 '웰컴 투 기계 월드'	이영준
2	잉여들의 영토와 슬픈 네트워크 디씨(DC)에 관한 민족지적 보고서	이길호
3	나는 어쩌다가 일본 미스터리를 팔아먹고 살게 되었는가	김홍민
4	일본애니메이션과 정치: 에바에서 진격의 거인까지	김민하
5	한국 게임의 역사를 이끌었던 진짜 오타쿠들의 이야기	오영욱
6	철도마니아의 시선 - '잉여'의 세계와 '접속'된 현실	장병극

성을 근본적인 차원에서부터 바꾸고 있다. 여기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계는 있었다는 이른바 기계의 선형성이 성립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계들을 고찰하고 비판하는 작업은 시·공간을 성찰하는 작업과 다른 것이 아니다. 그동안 기계를 오로지 그 즉각적인 사용가치를 검토하는 방향(오류와 효율성 점검)으로만 비판했다면 이 강의에서는 기계를 사용하면서 변경된 우리의 실제 삶과 의식을 성찰하는 훈련을 꾀한다. 이 강좌에서는 각기 버스, 기차, 화물선, 사진기, 라디오, 복사기, 인터넷, CCTV, 항공모함, 미사일 등의 기계들을 치밀하게 분석해 본다.”³³⁾

또한 2015년 2학기에도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는 <기계비평>이라는 동일한 강좌명의 강의가 개설돼 운영되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이어 2015년 2학기 성균관대에서는 ‘학부교육선진화사업(ACE)’의 일환으로 <기계비평론 - 기술의 인간학>이란 강의가 개설되었다. “균형교양”을 추구한다는 목표로 “인간/문화의이해” 영역으로 분류된 3학점 교양강의이다. <기계비평론>의 목표는 “학생의 소속 전공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기술문명과 인간 삶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도모”하며 “테크놀

33) 2015년 1학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기계비평> 강의계획서 강좌 소개 중에서

주차	강좌명	강사
1	오리엔테이션	오영진
2	미디어는 신체의 변형 및 확장이다	오영진
3	기계비평의 개념과 그 시작	오영진
4	‘복사기의 네트워크와 1980년대(복사기)	임태훈
5	사진기의 발명과 시각체계의 충격(카메라)	홍덕구
6	자연과 인간을 번역하는 사운드기계(스피커)	김준
7	호모 익스펙트롤(Homo Expectrol)의 탄생(CCTV, 기가픽셀)	임태훈
8	중간고사	오영진
9	네 번째 불연속, 인간과 기계의 공진화	최진석
10	우리는 타는 것이 아니라 담겨지는 것이다(버스, 화물선)	이영준
11	강박증자의 시간표와 시스템 유토피아(철도)	장병극
12	항모 민스크호는 왜 테마파크가 되었나?(항공모함, 전쟁기계)	강부원
13	‘구형 인쇄기’에서 새로운 ‘제작장치’로의 변신(인쇄기)	윤사비
14	해킹(hacking)을 통해 기계에게 자유를(아두이노)	김승범
15	소멸의 속도와 자유의 속도(미사일)	오영진
16	기말고사	오영진

로지의 문법으로부터 시도되는 테크놀로지 비평을 통해 기술문명에 관한 비평적 반성과 인문학적 전망 확보”한다. 또한 “기술문명과 인간 삶에 대한 이해를 기술 그 자체의 원리와 인간 삶에의 기여와 위험을 비평적 언어로서 논리화, 체계화, 문자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대학과 사회의 관계를 생각하며, 현재의 공부와 미래의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사회비평의 망 안에서 통합”하고 “대학의 융복합 기획을 대사회적 발신하여 학생들의 대사회적 가치 환기”할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³⁴⁾ 각고의 노력 끝에 실험적인 융복합 과정으로 기획된 <기계비평>과목이 대학의 제도 내부로 진입하고 또 수용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다른 대학으로는 인하대학교와 부산대학교가 '기계비평' 과목을 정규화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대학 밖에서는 '경기문화재단'을 비롯해 '경향후마니타스연구소' 등에서 '기계비평'의 후속 강좌를 시행하기 위한

34) 2015년 2학기 성균관대 <기계비평론 - 기술의 인간학> 커리큘럼

주차	강좌명	강사
1	우리는 왜 기계명을 극복해야 하나? - 기계비평을 위한 이론과 글쓰기 전략	임태훈
2	주체는 미디어에 의해 결정되는가 : 축음기 · 영화 · 타자기	황호덕
3	근대 초기의 한국인의 테크놀로지 체험	천정환
4	스피커 : 사운드스케이프의 번역과 생성	김준
5	컴퓨터가 블랙박스로 밀봉되기 전의 역사 : 기계식 아날로그 체계와 컴퓨터의 투명성	고구흔
6	아두이노 :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의 도전	김승범
7	스토리텔링 도구의 최종 진화 : 만연필 · 타자기 · 게임엔진	오영진
8	전공교차적 팀의 과제 수행	임태훈
9	내연기관의 테크노스케이프 : 기차 · 항공기 · 유조선	이영준
10	디지털 디바이스 개발의 인문학적 전환	이종관
11	액추얼, 버추얼 항공모함 : 항모 민스크호는 왜 테마파크가 되었나?	강부원
12	매번 새로운 사이보그, 춘향 : 미디어 변동과 <춘향전>의 재매개	임형택
13	인간 복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독일의 <블루 프린트> 논쟁	안상원
14	기계비평 실습(1) : 내 일상의 미디어스케이프 지리지 작성	임태훈
15	기계비평 실습(2) : 기계 해체 · 기록 · 해석	임태훈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³⁵⁾ 또한 <기계비평>의 결과물을 출판화하려는 움직임도 속속 감지되고 있다. 이후 <게임사회학>과 같은 강좌로 외형과 내용을 변화시켜 또 다른 첨단 기술 사회학으로 변형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³⁶⁾

매니악한 취미와 별종의 행위로 취급되던 ‘기계비평’이 대학의 정규강좌로 진입하고, 출판과 학술 영역의 당당한 한 장으로 편입하는 장면을 이제는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기계비평>은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강의가 개설되는 공정인 ‘연구-저술-강의’라는 평범한 도식에서 비껴서 있다. <기계비평> 과목은 비평과 강의가 동시에 진행되며 그 동시적 과정의 연쇄된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끊임없는 학술적 재생산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지식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 제도권 밖에서 태생해 결국 학술 제도권 내부(대학 정규강좌)로 진출하게 된 ‘기계비평’의 사례는 좀처럼 유사한 경우를 발견하기 어려운 성과가 아닌가 싶다.³⁷⁾

4. ‘기계비평’의 도전과 전망

한국에 ‘기계비평’이 등장하게 된 시기는 ‘황우석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과학계의 사건이 발생한 때와 거의 정확하게 겹쳐진다. ‘황우석 사건’은 과학기술에 대한 몰이해와 맹목적 신봉이 가져올 수 있는 온갖 폐해

35) 인하대학교의 경우 2016년 2학기부터 ‘기계비평’ 강의가 정규 과목으로 편성되는 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36) <게임사회학 1.0 - 헬조선에서 게임을 읽다>(인문학협동조합, 푸른역사아카데미, 2015. 7~8월), <게임사회학 2.0 - 이것은 게임이 아니다>(인문학협동조합,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2015. 11~12월)

37) 기계비평의 대학 진입과 정규교과목화의 과정과 의미에 대해서는 오영진, 『교양교육으로서 기계비평의 가능성』, 『컬투라』, 2015 가을호를 참조할 것.

를 드러냈다. 정치와 기술이 유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황우석 사건'은 한편으로 과학과 기술이 우리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로 느껴지기까지 했다.

'황우석 사건'의 배후에는 한국의 과학기술이 처한 모든 문제가 응축되어 있었다. 문(文)/이(理) 사이의 고질적 갈등, 국가 주도 기술 개발의 위험성, 기술 숭배의 비윤리성, 기술 지식의 비가시성. 부정과 모순으로 축성된 '황우석'이라는 견고한 '과학 성벽'의 해체는 심각한 사회적 충격으로 다가왔다. '황우석 사건'은 과학기술의 병폐에 대한 거의 모든 폭로가 되어버린 희대의 스캔들이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한국의 과학기술계는 큰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³⁸⁾

사실 스캔들로 드러나기 전까지 '황우석 신화'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기초과학의 융성과 생물학 저변에 활기를 불어 일으켰다. 그로인해 이공계열 기피 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며 기초 자연과학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 '의학(醫學)'을 최정점으로 하여 서열화 된 이(理) 계열 내부의 견고한 질서와 위계마저 뒤흔들 정도로 큰 자극이 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신화적 성과들은 역설적으로 그 신화가 파괴되었을 때 더욱 큰 부작용으로 드러났다. '황우석 사건'을 겪은 이후에도 여전히 국가와 자본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한 과학기술 육성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과학과 기술은 성과주의의 전시물이자 개발 경쟁의 분야로만 취급되고 있다. 더욱이 파멸로 치달은 황우석의 파괴된 신화는 기술에 대한 비평적 개입이 없는 과학기술은 과학과 기술에 대한

38) '황우석 사건'과 관련한 '황우석 신화'의 파괴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 과학계와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김근배, 『황우석 신화와 대한민국 과학』, 역사비평사, 2007을 참조할 만하다.

맹신 혹은 불신만을 낳게 되고 결국 허방을 짚을 수밖에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주기도 했다.

이전까지 과학과 기술은 거대하고 그 자체로 빈틈없고 완전무결한 ‘객관적·합리적 지식’이라는 불멸의 위상을 누려왔다. 그러나 ‘황우석 사건’ 이후 기술은 이제 해석과 가치 판단을 기다리는 ‘긴장된 지식’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게 되었다. 기술은 자연과 공학의 영역에만 속하는 비밀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망 속의 살아있는 지식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기계에 대한 지식을 확립하는 행위를 인문학의 물신화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또한 기계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곧 인문적 가치의 멸시와 무용론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연동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기계비평’이 ‘기계적 지식’이 아니라 ‘기계에 관한 지식’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기계의 비밀은 폭로되어야 하며, 은폐된 기술은 해방되어야 하지만 인문사회적으로 충분한 ‘끓기’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계비평’은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했던 과학과 기술의 복합적 작용과 그 사회적 맥락들에 대한 매혹인 동시에 성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계비평’은 기계와 자연, 기계와 인간, 그리고 인간과 기계 및 인간과 인간을 소통시키고 관계 맺게 하는 탁월한 매개자다. ‘기계비평’이 구체화하는 기술 지식 자체가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조화시키고 조절하는 기능으로 작용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술적 대상들이 구체화될수록 그 조화와 조절의 결과들이 만들어내는 의미장은 인문적 가치를 담지하는 사회적 관계망과 유사해져간다. ‘기계비평’은 기술의 발전을 ‘반-인간화’, ‘반-자연화’의 경향으로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정반대의 운동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이때 ‘기계비평’의 임무는 기술이 인간을 향해 있어야하

며, 그 인간은 기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단순 소박하지만 주체적인 명제를 다시 한 번 확립하는 일이 될 것이다.

'기계비평'은 '컨버전스(융합)'와 정보 네트워크로 특징지어지는 오늘날의 첨단 기술에 대해서도 새롭게 바라볼 것을 주문한다. 가령 산업 시대에는 기계와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개체적 관계가 경쟁으로만 인식돼 소외가 발생하고 소통이 불완전했다면,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이 중심이 된 현재와 같은 시대에는 사회적 배치와 분리를 넘어서는 개체 초월적인 관계가 가능해지면서 기술 지식에 대한 공명과 소통이 더욱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되었다.

또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기계비평'이 지금까지 짐짓 생략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 모를 젠더적 관점을 시급히 갖춰야만 한다는 것이다. 타자기와 냉장고에 대한 지식이 항공모함과 미사일과 관련된 지식과는 어떻게 다르며, 그 차이를 어떻게 내재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명이 시급하다. 기계라는 대상이 남성적 성격이나 가치로만 한정적으로 제유(提喻)되는 한 '기계비평'의 확장성은 심각한 장벽에 부딪치고 말 것이다. 인간이 모색할 수 있는 사회의 조화란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삶의 구체성에 입각한 것이어야 하고, 그 구체성은 젠더적 관점에 대한 이해 없이 간취되기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기계비평' 연구자들은 빠르게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기계비평'을 통해 인간과 기술의 공존과 합일의 개념을 완성하거나 인간적 가치를 탈환하는 일은 기술적 대상들 혹은 기계 환경에 내재한 젠더적 불평등에 대한 해소와 관습적으로 그려진 기계의 성적 분할선을 지우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 사회는 "기계 환경의 자연화"라는 명제만큼이나 '불순한 기술과 '오염된 기계' 역시 만연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계비평'은 인간과 기계의 상호 협력적 공존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론이 되어야

한다. ‘기계비평’의 기초는 기계를 통해, 세계를 향하는 새로운 인문사회학적 도전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첨단 기술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 인간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혁시키는 실천적 기술철학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참고문헌

1. 논문과 단행본

- 강부원, 『식민지 시기 비행기 표상과 기술지배로서의 신체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9.
- _____, 『매뉴얼과 전쟁기계 - 기술지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진보평론』 66호, 2015 겨울호, 224~239쪽.
- 김근배, 『황우석 신화와 대한민국 과학』, 역사비평사, 2007.
- 김재희, 『질베르 시몽동에서 기술과 존재』,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56집, 한국현상학회, 2013, 175~206쪽.
- _____, 『포스트휴먼 사회를 상상하기 위한 하나의 청사진: 질베르 시몽동의 기술-정치학』, 『범한철학』 제72집, 범한철학회, 2014, 387~414쪽.
- 김태호, 『과학기술을 말하기 두려운 시민에게』, 『시민사회신문』, 2014.10.28.
- 송성수,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공생을 위하여』, 『과학기술정책』 158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10~16쪽.
- 송성수 외,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연계확대 정책방안』, 한국과학기술학회, 2007.
- _____, 『육망하는 테크놀로지 - 과학기술자들 '기술'을 성찰하다』, 동아사이, 2009.
- 오영진, 『질주의 코기토, 폴 비릴리오의 사상에 대하여』, 『한양대 미래문화연구소 여름 심포지움』, 한양대 미래문화연구소, 2009, 86~112쪽.
- _____, 『교양교육으로서 기계비평의 가능성』, 『컬투라』 2015 가을호, 작가, 43~51쪽.
- 오용득, 『과학주의자와 인문학주의자의 통약 불가능한 대화의 실질적 의미』, 『서강 인문논총』 제36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31~63쪽.
- 이광석 외, 『불순한 테크놀로지』, 논형, 2014.
- 이기상, 『존재 역운으로서의 기술 - 사이버 시대에서의 인간의 사명』, 『하이데거 철학과 동양사상』, 한국하이데거학회, 2001, 308~355쪽.
- 이영준, 『기계비평 - 한 인문학자의 기계문명 산책』, 현실문화연구, 2006.
- _____, 『폐가서스 10000마일 - 이영준의 본격 향해 어드벤처 대양횡단 기계비평서』, 워크룸, 2012.
- _____, 『이미지비평 - 깃털머리에서 인공위성까지』, 눈빛, 2008.
- _____, 『기계산책자 - 비평가 이영준, 기계들의 도시를 걷다』, 이음, 2012.
- 이영준·조춘만, 『조춘만의 중공업』, 워크룸프레스, 2014.
- 이영희, 『한국 과학기술사회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경제와사회』 제100호, 비판사

- 화학회, 2013, 251~272쪽.
- 임소연, 『STS의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기계비평』, 『과학기술학연구』 12, 한국과학기술학회, 2012, 209~214쪽.
- 임태훈, 『우애의 미디어로지 - 잉여력과 로우테크(low-tech)로 구상하는 미디어 운동』, 갈무리, 2012.
- _____, 『검색되지 않을 자유』, 알마, 2014.
- 정광수 외,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한국학술정보, 2010.
- 천정환, 『문화론적 연구의 현실 인식과 전망』, 『상허학보』 19, 상허학회, 2009, 10~36쪽.
- 홍성욱, 『생산력과 문화로서의 과학 기술』, 문학과지성사, 1999.
- _____, 『인문학적 사유의 창조성과 실용성』, 『동향과 전망』 제44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0, 212~231쪽.
- C. P. 스노우, 『두 문화』, 오영환 역, 사이언스북스, 2001.
-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공통체 - 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 정남영·윤영광 역, 사월의책, 2014.
- 엘리안 스트로스베르, 『예술과 과학』, 김승윤 역, 을유문화사, 2002.
- 질베르 시몽동,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 김재희 역, 그린비, 2011.

Abstract

The History, Status and Prospectives of 'Machine Critics' in Korea

Kang, Bu-Won (Sungkyunkwan University IUC Researcher)

'Machine Critics' is not the only critical methods to deal with mechanical knowledge. 'Machine Critics' is a practical effort to understand the human life and culture associated with the machine in a comprehensive way. With the advent of instrumental humans("Homo Faber") and the machine is indispensable to human existence itself was a background. In the light of modern society in general knowledge that comes by the result of complex interactions of humanities revival and Industrial Revolution is a key organizing principle of human reason to understand the mechanical modernity. Moreover, when the State and the Capital secured the machine and look back on the history of representation and working actively used in modern state governance and the principles governing mechanisms, it is also the reason for the liberation of the mechanical problems that can not be postponed anymore.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and 'Technology Philosophy' is still poor, and poverty. 'Machine Critics' is also not yet fully caught criticism field position. 'Machine Critics' was the first attempt by the Lee Youngjun in the mid-2000s. The critically inherited the flow of 'Machine Critics' is enabled in Korea since the 1990s 'Cultural Studies'. 'Cultural Studies' and 'Machine Critics' is expected to share the practical critique modernity and social change. On the other hand, 'Machine Critics' is a feature that points directly targeted machine and try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life, culture and politics and philosophy associated with it at the same time to deal with professionally.

'Machine Critics' cracks in the old traditions of Korea are separated by academics field that the 'Human Arts' and 'Science and Technology'. Elimination of barriers between discipline system and who will emerge as potential knowledge to pursue consilience and fusion. However, 'Machine Critics' performance are still sporadic and is associated with heterogeneously observed. Research papers and lectures,

publications are a general aspect of its advanced process and appear in a different format and order of the existing studies are awarded to the attention of the media and academia. 'Machine Critics' is a claim to a bridge between the Humanities and Engineering and it is also a new challenge to overcome even the existing convergence limit.

(Key Words: Machine Critics, Cultural Studies, Science, Technology, Techné, Humanities, Technical Objects, Convergence)

논문투고일 : 2016년 1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월 30일

수정완료일 : 2016년 2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6년 2월 17일